

2022년 03월 13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17편 14~15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 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뵈오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205(통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느헤미야 8장 1~18절(구약p.737)

1.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2.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매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 그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술람이라
5.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7.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굴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았더라
13. 그 이튿날 모든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14.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15.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6.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17.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18.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 말씀선포 / 진정한 변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바뀌어야 ‘진정한 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린 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이방나라를 들어 그들을 징계 하셨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십니다.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들은 전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 다. 외형은 변화되었는지 모르지만, 내면은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등 환경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구태의연한 세상의 습관을 따라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 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라는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의 딸을 며느리로 삼고, 이방인의 아들을 사위를 삼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에게 본을 보야 할 제사장 가문조차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의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성회’를 열었습니다. 때는 주전 443년경 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의 수문(水門) 앞 광장입니다. 대상은 예루살렘 성안에 거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강사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사였던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로, 아멘하며 몸을 굽혀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습니까? “아멘!” 하면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아멘에 너무 인색합니다.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9절 상반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통해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간 나라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개인, 가정, 도시, 나라마다 변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진 채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순종하며 실천하였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앎이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불신과 반목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각자 따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면서도 크게 즐거워할 만큼 깨어진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다가 갑자기 지키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동안에도 초막절을 지키기는 지켰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전해준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제대로 지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외모를 잘 꾸며도 진정으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변화지 않으면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령이 변화면 됩니다. 심령이 변화면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 가족합심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421(통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 폐 회 / 주기도문